Episode\_3

★

생사를 오가는 순간이 오면 염원을 담아 간절히 빌어. 혹여 어느 마음 약한 신이 듣고 있을지도 모르니.

야 이 새끼야 너 운전 똑바로 안 해?

형 저기..

뭐야, 뭐야!

저 저 새끼들 뭐야? 맨 인 블랙(Man in Black)이야? 아 이 새끼들 뭐야?

빠.. 빨리 가! 가! 빨리 밟아! 빨리 가 인마!

어!

엄마..

내려야지, 네 물건들 챙기고. 다쳤어? 어디?

다쳐.. 그게..

뭐?

다쳤냐고 그렇게 묻기 있어요? 차를 저렇게 갈라 놓고?

잠깐만 여기 있어.

어떡하려구요? 죽일 거예요? 죽일 건 아니죠?

아니야.

뭐 맨날 말만 하면 아니래. 저승도 같이 왔네요. 저 양반이 뭐 나 구해주자고 왔겠어요?

저 맥락이 더 자연스럽기는 하지.

걱정 마 안 죽여. 단지 내가 화가 났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뿐이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게.

아이고 내 다리.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 주세요. 잘못 했어요.

이틀 동안 이 길은 지도상에서 없어질 거야. 이틀 동안 누군가에게 발견 되는 행운 따위는 없다는 뜻이다. 죽을 만큼 아프겠지만 죽지는 않을 거야. 다행히 이틀 후에 경찰에 의해 발견 되거든. 죄값은 경찰서에 가서 치르면 된다. 내게 치르지 않게 된 것을 감사히 여겨라. 신은 때로는 네가 핍박한 자들 사이에 숨어 있는 법. 감사 인사는 저 아이에게 하고.

둘이 싸운 거다 그뿐... 너흰 아무것도 보지 못 했다. 아 둘은 평생 화해는 못 할 거야, 참고로.

차를 안 가져 온 거예요?

아 우린 차를 잘 안 타고 다녀서..

아.. 혹시 진짜 혹시 해서 묻는 건데요, 저 혹시 죽었나요? 지금 저승 가는 길인가요, 이 길은?

여긴 그냥 시골 길이지. 좀 전에 우리가 너 살렸고.

그럼 이제 죽일 건가요? 저 혹시 생포 된 건가요? 산채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살려줘서 고맙다 감사하다는 언제 듣는 거야?

침착해 우린 지금 화가 안 풀린 19살 여고생과 함께야.

두 분이 이렇게 친하실 줄은 몰랐네요. 살려 달라는 사람한테 저승사자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살려 줘서 고맙다 감사하다는..

아 조용히 해!

아니 왜 소리는 지르고.. 근데 여긴 무슨 도로가 지나가는 차도 한 대 없어!

이 길에 이틀 동안 차가 안 다니게 했는데 누가.

조용히 하라고.

★

왜 아직 안 떠났어요? 떠나신다면서요.

조만간.

아, 신경 쓰지 마세요. 엄청 궁금해서 물어 본 거 아니에요.

알아.

근데 어떻게 왔어요? 나 아까 라이터 못 불었는데.

글쎄, 그냥 들린 거 같은데.. 살려 주세요 뭐 그런 거.

속으로 생각한 건데..

속으로 생각을 크게 하는 편인가 보지.

안 올 수도 있었잖아요.

안 올 이유가 없었어.

죄송하네요. 이렇게 신부도 아닌 저를 바쁜 와중에 구하러 와 주시고. 제가 수소문을 좀 해 봤는데요. 전에 저한테 덤으로 산 다고 하신 거요. 그 말 맞더라구요. 19년 전에 저랑 엄마 살려 주셨다면서요? 그래서 저 덤 이라도 괜찮아졌어요. 태어난 덕에 엄마도 만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저씨 미워 안 하려구요.

미워하는 거 같은데?

아니거든요. 혹시 만나게 되면 꼭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안 만나기를 바래셨겠지만.

미워하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아니고요. 앞으로 소원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마음 푹 놓고 잘 떠나시고요, 가내(집안) 두루(빠짐없이 모두) 평안 하시고요, 꼭 좋은 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해 주시는 그런 막 예쁜 분. 아 얼굴 말고 마음이요. 얼굴 안 보신 댔으니까. 다 끓었으니깐 이제 드세요. 그럼 전 이만..

어 저기, 이거 나 안 먹었는데 내가 내?

아저씨가 먹자고 그랬잖아요. 저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저 돈 없어요.

그럼 돈은 내가 낼 테니깐 넌 시간 내. 먹고 가. 지금 저 저녁 먹이시는 거예요?

어. 그 자들이 뭐 밥 먹이고 납치 했을 리는 없고.

싫어요. 저 아저씨랑 먹기 싫어요. 정 그러시면 싸 주세요. 떡볶이만 감사히 받을게요.

미워하는 거 맞네.

★

자 삼촌 잘 들어봐. 은탁이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이모와 남매들에게 구박을 받았드래요. 샤바샤바 아이 샤바 얼마나 울었을까? 누가 울렸냐 하면 이모와 남매들. 이건 뭐 더 깊이 팔 것도 없어. 그냥 동네에 소문이 자자해(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려 떠들썩하다). 은탁이란 애 앞으로 애 엄마가 남긴 보험금이 1억 5천인가 있는데 얘가 성인이 되면은 그 돈을 자기 맘대로 못하니깐 애를 아주 잡는 모양이야, 이 이모가.

왜 그렇게 봐?

네가 쓸모 있다는 것에 놀라는 중이다.

허 참 이 재벌이라 하면은 응당 돈과 권력을 이용해 남 뒷조사 한번 해 봐야..

사진은 어디서 났어?

찍었지, 잠복해서. 근데 은탁인가 걘 못 봤어. 바쁜가 봐.

그건 뭐야?

나 잘 나왔길래. 근데 삼촌 이거 왜 알아 오랬어?

벌 주려고.

어떻게?

삼촌 어디 아파? 이게 벌이야? 금이지? 아니 무슨 벌을 금으로 줘? 나는?

넌 수고 했고.

아 왜 나는, 나는 왜 이 벌 못 받는데 어? 나 죄 되게 많이 짓지 않았어? 나 진짜 천벌(하늘이 내리는 큰 벌) 받아 마땅하지 않아?

★

아 이 새끼들은 애를 잡은 거야? 어쩐 거야? 왜 전화가 없어. 아 조용히 좀 해 이 새끼들아! 지 엄마 속은 타 들어가는데 그냥 어! 어이구 그냥! 그 생돈을 양아치들 뱃속에 다 넣어 주게 생겼는데 어이구!

어차피 다 엄마가 빌려 쓴 거잖아.

아주 그래 니들 굶겨서 죽여 버릴 걸 그랬지?

지금도 뭐 별반 다르진 않아.

그래 내가 미친년이다, 미친년. 내가 뭔 영화(glory)를 보겠다고 연년생(siblings born within a year으로 싸질러 가.. 에?!

이거 뭐야?

금이잖아. 병신아.

와 지은탁 그 돈을 다 금으로 바꿨어.

그러게 통장이 없다고 잡아떼는 이유가 있었네. 이러니깐 통장이 없지.

해 뜨자 마자 금은방(금, 은을 사고파는 가계) 가자 약속대로 똑같이 나누는 거야 똑같이! 허튼 수작 부리기만 해.

이 새끼가 엄마한테!

줘봐, 줘봐, 줘봐, 줘바!

놔! 놔! 놔! 놔!

어 어 엄마 일어나! 경미 이 년이 금 갖고 튀었어!

아 이 미친년이!

아, 이 년 계속 통화 중이야.

그니깐 계속 통화 중이야 지금.

대체 어떤 새끼랑 하는 거야? 이씨!

이 새끼랑 하네, 이 새끼랑. 빨리 끊어! 빨리 택시 잡아! 빨리!

택시, 택시, 바빠, 바빠, 바빠!

비켜, 비켜!

네, 할아버지. 삼촌 지금 밥. 아니 진지(밥의 높임말) 한 술(숟가락) 뜨셨고 내가 김치까지 얹어 드렸어. 설렁탕. 네, 네. 근데 할아버지 나 카드.. 여보세요? 여보세요? 사실 이 문젠 삼촌이 한 마디만 거들어 주면.. 삼촌 내 얘기 들었어? 아 뭐 보는데 뭐?

텔레비전.

불쌍한 사람이야. 불쌍한 사람한테 화 내는 거 아니야 재벌 3세는.

딱 저 나이 때였다.

누가?

내가 지키던 왕. 17살이었다. 왕을 지켰어? 대박 삼촌 혹시 내시(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 고자)였어?

오시였다. (내시와 네시(4시) 발음이 비슷하여 오시(5시)라고 대답했음. 재미 없는 옛날 말장난)

불쌍한 사람이지, 덕화야. 네 도움이 필요한 거라고 지금.

하루 중 가장 화창한 눈이 시려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원망 했는데 왕이었는지 신이었는지 나였는지 그건 잊었다.

★

쟤야?

뭐가?

내 천 년의 분노. 나를 죽인 왕의 환생(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남). 잘 좀 봐.

환생했대?

나도 몰라. 환생하면 딱 저 나이대야.

내시, 내시. 마마! 내시. (내시는 거세하여 목소리 톤이 높았다)

잊어. 다 그런 미움과 그 복수에 대한 열망이 널 지금 불행하게..

넌 기억 못해서 행복하냐?

그냥 봐서는 몰라. 손이 닿아야 알아.

뭐가요?

대체 넌 어따(어디에다가) 써 먹으라는 거야?

아니, 손 닿으면 뭘 아는데요?

근데 왜 꼭 남자로만 환생했을 거라고만 생각해?

쟤야?

그냥 봐서는 모른다고, 손이 닿아야 알지.

아 손 닿으면 뭔데, 뭔데?

쟤지? 쟤라고 해! 나 용서할 준비가 된 거 같아.

천 년의 분노라며.

다 사정이 있었겠지. 너도 알다시피 분노란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으며.. 어디가?

아 뭔데, 뭔데요? 손 닿으면 뭔데요? 아 왜 자기들끼리만 얘기해.

으이구 으이구!

★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22기 김 차사 입니다. (차사: 죽을 차례가 된 사람을 잡아오는 사자, 이름이 없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23기 김 차사 입니다.

수고 많다. 앉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휴 파릇파릇하다. 우리도 이런 때가 있었는데.

22기 김 차사.

어, 쉬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근데 선배님들 왜 사내메일 확인을 안 하십니까? 기타 누락자 있잖습니까? 기안(Project draft) 통과 돼서 전담팀(전문적으로 맡은 팀) 신설 됐답니다. 연말정산(year end adjustment) 전까지 명단 올려 주시지 말입니다.

난 없다. 넌 두 건 있지?

누가 그래? 나 두건 있다고?

음, 다 그래 너 두건 있다고.

금방 올릴게.

그래 주시면 감사 하지 말입니다. 아 저는 이만 시간 돼서 가 보겠습니다. 동계 워크숍 때 뵙겠습니다.

어이 수고.

쟤야, 쟤. 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23기 김 차사 입니다.

아 하하 그래.

가보겠습니다.

어 가봐. 아 곱다. 쟤는 천사를 해야지 왜 저승사자를 하고 있어?

쟤네 기수(1기, 2기, 3기.. 기 숫자) 아주 신났어, 쟤 땜에.

우리 기수에서도 네가 제일 신나 보여 쟤 땜에.

비켜 주세요.

오빠!

그럼 나도 이만.

어이, 아아 그리고 5월말에 23기 신고식 겸 회식 있다. 빠지면 벌금 있다. 꼭 빠져.

22기 김차사, 22기 김차사

수술실 콜 됐어요? 시간 없어요. 빨리요.

최영재씨?

죄송하지만 나중에요. 보호자는 밖에서..

33세. 병신년 무수월 기사일. 17시 41분 사망. 사인, 과로사(death from overwork). 본인 맞으시죠?

저 죽었습니까?

야 최영재, 최영재! 영재야, 최영재.. 영재야..

의사 선생님 응급처치 덕에 이 환자는 살았습니다.

바이탈 안정 됐습니다. 환자 살았어요.

다행이네요.

★

TEXT ON THE SCREEN

기타 누락자 신청서

대상자

누락내용

★

TEXT ON THE SCREEN

도깨비전(도깨비 이야기)

깨비 분식

깨비 완구

밤도깨비(밤에 자지 않고 활동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여행

저 시집갈게요. 아저씨한테, 난 암만 생각해도 아저씨가 도깨비 맞는 거 같거든요. 사랑해요. 찾았다.

눈 감으세요. 눈 마주치면 안돼요. 저 사람 저승사자예요.

몰라, 떠나든지 말든지.

★

벌써 팔렸나?

아니 대체 왜 환불이 안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손님 영수증이 없으면 환불이 어렵습니다.

전 책을 사려 했지 누군가의 추억을 사려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보세요. 책에 이런 게 들어있음 전 어떡하죠? 환불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 하셔도.. 저기 영수증을 가져 오셔야..

이거 이거 제가 살게요.

학생이 이 추억의 주인이야?

네, 네. 제 추억 맞아요. 제가 살게요.

학생 거라는 증거가 없는데, 이 단풍 어느 동네 건지 맞춰 봐.

근데 제가 동네 이름 말해도 모르시잖아요.

정답.

잃어 버린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뭐 알겠고, 그거 읽을 나이는 지난 거 같은데?

아 그냥 조사 차, 그러시는 분은요.. 이 책을 왜?

아 나는 아는 도깨비가 있어서.

네?

왜? 다들 아는 도깨비 하나씩은 있는 거 아니야?

진짜요?

진짜요 라니 이 소녀야, 누가 보증 서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안돼요.

이 옥장판(다단계 판매에 가장 흔하게 파는 물건 Pyramid selling) 좋아요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싫어요.

누가 과자 사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휴, 꺼져요.

책값은 주고, 만 원. 나 언제까지 앉아 있어야 돼?

아, 죄송합니다. 근데요, 이 책은 중고 책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안돼요. 싫어요.

한 번만, 한 번만.

꺼져요.

삼촌. 하 할 할아버지.

세탁물 찾아 오는 김에 안부 차 들렸다.

근데 손님이 와 계시더구나.

아 손 손님이.. 와 계시는 분은 누구 세요? 저희 삼촌 집엔 어떻게 오셨나요?

저자의 친구. 이 집에 놀러..

아 놀러 오셨구나, 친구 집에 삼촌 되게 되게 친한 친구 분이시구나 아 삼촌 해외 가신다고 그래서 송별회 하러 오셨구나.

잘 가고, 몸 건강히, 영영 오지 말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죽을 때까지 거기서.

너나 잘 가. 너 나랑 안 친하잖아. 나가 빨리, 내 집에서. 영영 다신 오지 말고.

에이 삼촌 왜 그래? 되게 되게 친한 친구분한테..

넌 아닐 거 같아? 너도 나가 되게 되게 빨리!

와 어떻게 저러지?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그러게나 말이다.

그쵸? 아니 어떻게 나까지 내 쫓아? 친 삼촌이면 저렇게 하겠어요, 나한테? 하 금방 가실 거예요.

그래야 할 거야. 안 그러면 네가 금방 가실 테니까. 어딘가로.

거기가 좋은 데는 아니겠죠? 그쵸.

들어와.

됐어. 삼촌이 아무리 들어오라고 빌어도..

너 말고, 너 너네 집 가. 혼나러.

일 대 영 (1:0)

나 혼나? 나 왜 혼나? 삼촌 설마 할아버지한테 다 얘기 했어? 와 치사하게 진짜, 뭐 어디까지 얘기 했는데? 뭘 알아야 나도 말을 맞추지.

넌 나랑 말 맞추고 집 내 놨냐? 허!

못 가. 어딜 가 진짜. 죽어도 이 집 귀신이야.

★

오 예!

굿 나잇 1:1

말피! 말피지! (도깨비가 말의 피를 무서워한다고 함) 야 저승, 이거 안 치워? 야 이거 미안하다, 이거 좀 치우고.. 야!

★

네?

너, 여기서 자니?

죄송합니다.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타이밍을 못 잡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난 가게에서 이를 닦지 않아. 증거는 또 있어.

사장님 저 사실 가게에서 자고 있어요. 사장님 당분간 신세 좀 져도 될까요? 사장님 제가 가게에서 숙식(숙: 자고 식: 먹음) 중 숙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살려주긴 뭘 살려줘.

TEXT ON THE SCREEN

사장님 저 사실 가게에서 자고 있어요.

사장님 당분간 신세 좀 져도 될까요?

잘 묵고 갑니다!

집에서 쫓겨 났어요 ㅠㅠㅠ.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모 때문이야?

그렇기도 하고 자꾸 엎친 데 덮쳐 가지고.

알았어.

더 안 물어 보세요?

물어봐서 뭐해? 해결해 줄 것도 아닌데.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나 해 주는 거지. 자 여기 일주일 치 알바비. 알바비 주급으로 줄 거야 왜? 월급으로 주면 너 못 받을지도 몰라. 여기서 자더라도 찜질방 가서 씻고 식혜 사먹어.

감사합니다.

받을 거 받는데 그렇게 까지 감사해 하면 너 사람들이 우습게 본다.

저는 돈이 아니라 사장님의 멋있음에 감사한 건데요.

그게 돈이 멋있는 거야 알바생. 씻고 와

가기 전에 오징어 한 마리만 구워 주고.

술 드시게요?

아니 오징어만, 나 술은 입에도 안 대. 많이 마시면 취해서.

에?

★

어!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취소야 취소 아니야! 책 보고 계셨나 봐요.

늘 책을 가까이 하고 음악과 그림에 조예가 깊은 편이야. (조예가 깊다: have profound knowledge)

죄송하네요. 독서하시는데 방해해서.

그니까, 왜 방해해? 안 부른다더니.

안 불렀어요. 실수였어요. 오징어 굽다가 다리에 불 붙은 바람에 불러진 거거든요.

맛있었니?

왜 여기 계세요? 아직 안 가셨어요?

짐 싸던 중이었어 책 싸다가! 항상 책부터! 그럼 난 이만 짐 마저 싸야 돼서.

저기..

넌 가려고 하면 항상 말 걸더라.

제가 말 걸려고 하면 항상 아저씨가 가는 거거든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오백 안 해 줄 거야.

아 깜짝이야.

고백 안 해 줄 거야로 들었어요. 아저씨가 넘겨 짚고 엉뚱한 소리 하니깐 그러는 거잖아요.

어디서부터 내 탓인 거니?

거기서부터요. 제가 뭘 봐야 한다는 거기. 그러니깐 제가 정확히 뭘 봐야 하는 건데요? 아저씨한테 효용가치가 생기려면?

알려주면 보인다고 하게?

아니요 보여도 안 보인다고 하려구요, 그거 보여서 아저씨가 갑자기 잘 해주면 어떡해요? 오백 딱 해주고 고기 사준다 그러고 갖고 싶은 거 없냐 그러고 그럼 나 되게 피곤하잖아요. 나 아저씨 되게 별로인데.

하아 나 그런 말 진짜 처음 들어 진짜야 처음 들어 진짜. 어른이 얘기 하는데 어딜 봐!

대답 하기 싫음 하지 마요.

그래, 뭐 이렇게 특이한 거 안 보여? 뭐 되게 아파 보이는 뭐 그런 거

아 그거?

보여?

난 또 뭐라고.

안녕히 가세요 전 바빠서 이만.

야 고기 먹을래? 가지고 싶은 건 뭐 없어?

오백이요.

너 바쁘다며 이만 빨리가

그럼 고기요, 이쪽.

마지막 고기다. 너 보여?

네.

되게 맛있어 보여요. 잘 먹었습니다.

아 보이냐고? 너 안 보이지?

지금 저한테 신경질 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들렸어?

네.

미안. 식후(식사 후) 생과일 주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는지 물어 본다는 게 그만 톤이 높았다,그치?

생과일 주스요?

뭐 마실래? 비싼 거 시켜도 돼.

배 부른데, 전 이거 라지 사이즈요.

너 배 안 부른데?

나도 같은 걸로.

계산 도와 드릴게요.

계산 돕는다는데?

저자는 안 돕겠습니다.

웬일이냐?

과일 상스러워서 싫다며?

너야 말로 웬일이냐? 뭐 오늘 여기서 누구 죽여?

나 여기 단골이야.

혹시 전 가요? 오늘 여기서 죽는 누군가가? 혹시 저 소고기로 유인(lure) 당해서 주스라는 매복(ambush)에 걸린 건가요? 둘은 진짜 한패고?

오해야, 사실 난 너랑 한패거든.

너는 검이 보인다. 검이 보인다. 그 검을 뽑는다. (최면 hypnotize 거는 중)

뭐 하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저랑 한패예요?

얘 뭐야? 왜 안 걸려?

뭐든 예상을 벗어나는 애지.

첨부할 서류가 장난이 아니란 얘기네. 그럼 좋은 시간 보내. 난 이쪽이 선약이라

진짜 주스만 마시러 왔나 봐요. 신선 하다. 근데 왜 같은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랑?

신들의 일이야 몰라도 돼.

근데 저 아저씨 되게 쓸 데 없이 잘 생기지 않았어요? 잘생겨야 사람들이 잘 따라 가니깐 업무상 그런 사람들만 뽑은 건가? 저승사자들은 원래 다 잘 생겼어요?

저게 잘생긴 거야?

네 저게 바로 잘생긴 거예요.

그럼 난?

아저씨는 음 그냥 생긴 거죠.

그만 먹어. 너 배 불러.

어 저 아저씨도 잘 생겼다. 여기 물이 좋은가 봐요

금방 갈게용. 좀 따 봐! 사랑해! (귀엽게 말하는 중: 금방 갈게요. 좀 이따 봐! 사랑해)

TEXT ON THE SCREEN

자기얌~♡

나 요기 카페 앞이에용~~

언제 와? 빨리 보고싶어~~

금방 갈게용 좀 따 봐~~ 사랑

응 자기야 자기 보고 싶으니깐 빨리 갈게요.

뭐 하세요?

누구나 일어 났으면 하는 일.

괜찮아요?

마법.

어머 죄송해요. 이건 제가 풀게요.

예.

죄송,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풀렸.. 풀렸는데...

괜찮아요?

네, 오늘 참 이상한 날이네요. 꼭 마법에 걸린 것처럼..

그래서 묻는 건데 그쪽 남친 있어요?

아니요. 집이 엄해서.

엄했구나.

여친 있으세요?

모쏠(모태솔로: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본 사람) 입니다. 그쪽 기다리느라.

뽀뽀해! 뽀뽀해! 부업이 큐피트예요? 방금 그거 그거죠? 수호신 그거.

백 년에 한 두 명, 전생과 같은 얼굴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다. 때문에 사내의 전생을 안다. 저 여자는 사내가 놓쳐서는 안 되는 여자다.

우와 전생이 뭔데요? 그 말로만 듣던 나라 구한 남자예요?

저자의 전생은 가난한 소작농(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등쳐먹었던 지주보다 더했던 마름(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왜 도와 줘요? 나쁜 사람도 수호신 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착하게 산 사람들 다 맥 빠지게.

난 저들의 수호신이 아니라 방금 저들이 놓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수호신이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자기 보고 싶으니깐 빨리 갈게요.

빨리 오지 말고 천천히 와 다치니깐 알겠지?

우와!

사내는 거짓말쟁이에 비겁하고 여자는 허영심이 많고 감사할 줄 모른다. 이제 저 둘은 서로와 서로의 지옥이 되어 줄 것이다.

우와 좀 멋진데?

나는 종종 그렇게 인간들에게 마법 같은 순간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근데요. 아까부터 왜 자꾸 말투 사극(역사극) 톤이신지?

알다가도 모르겠구나.

그러면 제 인생이 이따위인 건 제가 전생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인가요? 도깨비 신부로 태어난 건 그 벌인 가요?

네 전생이 어땠는지는 모르겠고, 현생을 논하기에는 19살은 아직 이르고, 넌 도깨비 신부가 아니고.

오 안 속네. 다사다난(여러 가지 일도 많고 어려움이 많음) 하기는 했지만 저도 뭐 제 인생 좋아요. 엄마에게 벅차게 사랑 받았고 우산도 생겼고 아저씨 만난 것도 좋구, 아 좋았구. 과거형이에요.

뒤끝도 있고,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아직 대답 안 했고, 보여 안 보여?

울 엄마가 그랬어요 사람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고 갈 때를 알고 떠나야 한다고 제 말 무슨 뜻인지 알죠?

모르겠는데.

우린 여기 까지란 뜻이죠. 전 이쪽. 안녕히 가세요.

★

오오 좀 멋진데?

우와 좀 멋진데? 삼촌 방금 그림 같았어. 끝방 삼촌은?

아직.

하긴 주로 야근이겠지. 삼촌 나 있잖아, 나도 나중에 죽으면 끝방 삼촌처럼 저승사자나 할까 봐. 인생이라는 복도에 끝 방을 열면 죽음이 있는 거잖아. 그 마중을 끝방 삼촌이 나오는 거고.

꿈 깨라. 네 죄로는 어림도 없다. 이런 말 하기는 싫지만 전생에 큰 죄를 지어야 저승사자..

큰 죄? 큰 죄 뭐?

너 어떻게 안 것이냐?

헐 대박! 진짜 살인범 이야? 와 진짜 이게 사람이 얼굴만 보고 모른다, 진짜.

말고 그자가 저승사자인 거 어떻게 알았냐고.

삼촌, 질문이 너무 늦었다는 생각 안 들어? 그때 왜 삼촌 우울해서 거실에서 구름 끼고 번개 치고 그랬을 때 끝방 삼촌 나오길래 나 약간 식겁(뜻밖에 놀라 겁을 먹음)했거든. 이야, 근데 그 삼촌 표정 하나 안 변하더라.

쟤 왜 저래?

그리고 나 다 있는 데서 저승사자의 예지력 뭐고 다 말했잖아 삼촌들이

애 앞에서 별 얘기 다하는 저승사자.

저승사자의 예지력을 우습게 보지 않길 바래.

그 뿐이야? 얼굴은 하얘 가지고 입술은 또 빨게 가지고 옷은 까매 가지고.. 난 무슨 연예인 인줄 그럼 전 이만.

너 내가 저승사자인 거 어떻게 안 거야?

이러는데 어떻게 몰라 이러는데. 저기 있던 사람이 막 여기 있는데. 진짜 조심들 좀 해라 삼촌들 너무 부주의 하고 천진난만해(꾸밈없이 순진함).

너 때문에 들킨 거야. 남 뒷담화(뒤에서 하는 대화)나 하는 도깨비.

네가 하는 꼴을 봐라 나 때문인지, 전생에 살인자였을지도 모르는 저승사자.

지는 뭐 길 가는 개미 한 마리 안 죽여서 이렇게 벌 받고 있나 봐. 하 참.

완전 상처 받았나 봐. 어떡해?

나도 별 대책 없는 얼굴로 안 보이니?

큰 죄라.. 불효(undutifulness to parents), 불충(disloyalty), 불손(arrogance), 불기, 불륜(adultery).. 이렇게 까지 가지 말자, 아닐 거야.

어 아니야.

왜, 뭐 하러 왔는데?

책임감 있는 행동.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 보통 사과라고 하지. 아깐 실언 했다. 미안하다.

치 이중에 뭐가 아닌데?

불효.

나가.

방금도 실언 했다. 네가 웃을 줄 알았지.

나가.

전생이 뭐가 중요해, 난 네가 전생에 뭐였든 뭘 했든 하나도 안 중요해.

진짜?

어.

네가 뭘 했든 난 한결 같이 네가 싫거든.

아, 웃으면 안 되는데.

★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난 삼촌이 끝방 삼촌 당장 쫓아 낼 줄 알았거든? 근데 의외로 둘이 알콩 달콩 잘 지내는 거 있지.

한 분은 전생을 잊어 괴롭고, 한 분은 전생이 잊혀지지 않아 괴롭지. 그런 두 존재가 서로 의지하시는 거다. 우리야 그저 두 분의 긴 인생 중에 잠깐 머물다 갈 뿐이니.

아, 그렇구나. 근데 할아버지도 알고 있었어? 아이 삼촌들 진짜 밖에서는 들통 안 나고 잘 다니는지 걱정이다, 내가.

넌 네 걱정이나 하거라. 팔 쭉 펴, 허리도 쭉 피고.

내가 친 손자일 리 없어.

친 손자한테 이럴 리 없어. 복수 할 거야.

네 이놈!

★

김 비서님도 아시겠지만 여기가 저 여덟 살 때 생일 선물로 받은 건물 입니다.

압니다. 아홉 살 때는 뭐 받으셨습니까?

미움을 받았죠. 다 한때였죠. 무척 어엿한 성인이 된 지금은

여전히 미움 받고 계시는 거 아시죠, 덕화군? 무척 어엿하게 카드를 쓰시니까요.

그래서 끊으셨죠 김 비서님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이 건물을 통해 현금 융통을 좀 하려고 합니다. 목 좋은 가게부터 좀 비워 주세요. 잡음 없이 깔끔하게. 일단 요 장사 접은 이 치킨집부터.

음 덕화군 먼저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 저 치킨집 문에 CLOSED라는 팻말이 걸려 있네요. 현재 영업시간이 아니라는 뜻이죠. 장가를 접은 게 아니라 둘째 우린 같이 온 게 아닙니다. 제가 덕화군 미행하는 거죠 회장님 지시로.

뭔 미행을 이렇게 대놓고, 하 난 뭐 같이 온 줄 알았네. 그럼 이렇게 하죠. 곧 비서실로 전화 한 통 갈 겁니다. 한 여자가 물을 겁니다. 제가 거기 다니냐고 그럼 그때 제가 거기 다닌다고만 해 주세요. 그럼 됩니다. (신용카드를 만들 때 직업 확인을 위해서 신용카드 회사가 직장으로 전화를 한다.)

안 다니시잖아요.

김 비서님 진짜 일 참 정직하게 하신다, 우리 할아버지 든든하시겠다, 정말. 저 카드 새로 발급 받아야 된다고 예? 제발 한 번만.

★

어디가?

슈퍼.

슈퍼? 갈수록 레퍼토리(repertory)가 성의가 없다.

장 바구니 든 거 안 보여?

장 바구니인 줄 몰랐지.

★

어떻게 진짜 따라오냐? 너 나 못 믿어?

믿겠어?

너 원래 걔한테 갈려고 했는데 내가 따라오니깐 슈퍼로 튼 거 아니야, 저번에 카페도 걔 데리러 온 건데 나한테 딱 걸린 거고.

나 걔 안 데려 갈 거거든, 나 엄청 응원하고 있거든 지금.

네가 걜 왜 응원해?

나 진짜 걔랑 한패야. 신부가 검 뽑으면 죽는다며. 뭐 해외로 떠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떠나는 게 더 좋지 않겠어? 걔가 당장 검은 못 봐도 볼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기적 같은 걸 믿어 보려고, 난 그날에 승부수 걸었어. 여기 보는 사람 많다.

좋아 약속 하나만 해.

뭐 갑자기 뭔 약속?

내가 떠나면 그 아이는 안 건드린다고.

진짜야? 진짜 가게?

단 네가 걔 데려가려고 폼 잡는 순간 난 곧바로 돌아 온다 그 집으로, 그러니까 걘 내버려 둬.

언제 가는데?

모레. 좋냐?

★

안 들켰어요? 아니 집에까지 오면 어떡해요? 이모 알면 나 죽어요. 안 들켰어요? 우리 이모네 자요?

몰라.

아휴, 놀래라. 근데 우리 집까진 어쩐 일이에요? 나 보러 왔어요?

그래 볼까?

뭐라고요?

내가 네 생각을 했나 봐 잠깐. 그래서 내가 너 보러 온 모양이라고.

왜요? 내가 뭐 신부기를 해, 예쁘기를 해, 맨날 목숨이나 구해줘야 되고 민폐나 끼치는데 왜 보러 와요?

이런 게 보고 싶었나 보다. 봤으니 갈게. 이모네 사라졌어. 집 비었으니깐 들어가.

이모네가 사라졌다고요? 진짜요? 언제요?

근데 넌 몰랐는데 왜 왔어?

아 뭐 좀 놓고 간 게 있어서 가지러요.

뭐?

그냥 뭐.. 아저씨는 몰라도 돼요.

그래 그럼, 간다.

★

저기요, 저 까만 오빠. 오빠 머리핀 안 필요해요?

핀은 선호하지 않아서..

으음, 그럼 사서 애인 줘요.

애인이 없어서.

애인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요건 일단 사면 계속 있어. 거울 한 번 대봐요, 오빠.

이거 얼마예요? 내가 먼저 집었잖아.. 그렇다고 뭘 울어?

어?

양보해 줘요? 공짜로는 싫은데, 그쪽 전화번호 주면요.

없는데 그런 거.

핸드폰이 없어요? 가난해요?

핸드폰이 별 필요가 없어서.

번호 줄 마음이 없는 건 아니구요? 양보 취소.

그쪽 전화번호 줘요. 번호 적어서 놔요 여기 반지랑.

일단 통성명(처음으로 인사할 때 서로 성과 이름을 알려 줌)부터 하죠. 내 이름을 알아야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반가워요. 써니예요.

선희요?

그게 좋으면 그렇게 해요. 어차피 예명이라 뭐든 상관 없으니까.

카드? 현금? 아 돈은 누가 낼 거야? 누가 내든 상관은 없어. 어차피 둘 다 아주 비싼 값을 치르게 될 테니깐.

★

내가 늦었구나.

저는 괜찮습니다. 혹여 이게 마지막이면 이 또한 제 운명인 겁니다. 그러니 가세요. 멈추지 말고 폐하께 가세요, 장군.

★

너 진짜 이럴 꺼야? 너 도깨비 신부도 아니라며 그냥 나랑 같이 가자 어? 이씨 나쁜 년. 내 말 귓등으로도 안 듣지? 그래 나도 혼자 구천을 떠돌고 있으니깐 너도 혼자 지내봐. 너 아는 사람들 내가 싹 다 해코지(남을 해치고자 하는 짓) 할거야. 저 여자부터 죽일 거야.

이런 씨 발라먹을 수박, 조카 신발, 확 씨뿔(C+) 비뿔(B+) 에이뿔(A+)이! (욕과 비슷한 발음의 단어들로 욕을 대신 하고 있음)

아하 무무무서워 야 저 여자 무서워.

사장님 괜찮으세요?

솔직히 말해 봐.

나 요즘 미모 비수기(off season ↔ 성수기)니? 내가 사이즈 딱 나왔는데, 분명히 이쯤이면 연락이 오고도 남았는데 왜 안 오지?

아 그 반지? 그 남자?

일단 진정..

진정 힘들어. 내가 본 남자 중에 제일 잘 생겼단 말이야. 보여 내 노력이? 피부 생각해서 매일 마시는 거? 근데 왜 안 오지 전화?

잘생긴 남자들이 원래 다 얼굴 값 해요. 그냥 잊으세요.

어떻게 잊니? 내가 만난 남자 중에 나한테 양보 안 한 유일한 남자인데, 반지 예뻤는데.. 딱 내 것 같았는데.

★

펜 있어요?

없어요. 그냥 부르세요.

좀 웃겼다. 이과예요?(major in natural science? = 숫자에 강하냐고 질문한 것) 전화번호의 완성은 립이죠.

★

조심 조심!

안녕하세요. 이게 다 뭐예요? 우리 집 이사가요?

이모랑 연락 안 했어? 너네 이모가 집 내놨잖아. 내일 모레 이사 들어오는데 짐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가지고 내가 이 고생이다 지금.

집을 내 놨다고요? 난 어떡하지.. 저는 어떡해요?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너네 이모한테 물어야지. 너네 이모가 전세금 다 빼 갔어. 너 챙길 거 있으면 얼른 챙겨.

★

연인

★

지은탁, 너 그 가방이랑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봐. 얼른.

선생님, 이건요..

조용 안 해? 아주 불이란 불은 다 가지고 다니네. 담배는? 담배는 안 꺼내? 마지막 양심이야?

아니요, 선생님 이거 진짜 제가 사정이 있어 가지고.. 저 담배 안 피워요.

애들이 너 담배 피우는 거 봤다는데. 짧게 가자 짧게, 어? 손 내밀어 봐. 얼른. 양손 다. 얘 철저한 것 봐. 머리 좋은 애들이 이래서 무섭다니까. 지은탁, 난 너 같은 애가 공부 잘 하는 게 제일 무서워. 앞에서는 착한 척 불쌍한 척 하고 뒤로는 호박씨나 까고(속담- 호박씨 까다: 얌전한 척 하다가 뒤에서 은밀하게 온갖 짓을 다 하는 것) 너 같은 애들이 사회 나가서 분란(어수선하고 소란스러움) 일으키는 거야. 그러면 진짜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보는 거야, 은탁아. 응?

★

고마워

갑자기 술은 왜?

지는 술이 갑자기가 어디 있어, 술이랑 여자랑 고기는 많을 수록 좋은 거야. 지조는 장군일 때 충분히 지켰어.

장군이었어?

옛날 같으면 너 나한테 말도 못 걸었어, 어딜 감히.

내가 뭐였을 줄 알고?

뭐였는데?

짐은? (짐의 두 가지 뜻: 챙기거나 꾸려놓은 물건 / 왕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키는 말)

막 던진다(아무 말이나 막 한다). 뭐 왕이었어?

짐 다 쌌냐고?

아 그 짐. 뭐 워낙 간단해서..

잘 가고.

전화할게.

나 전화 없잖아.

그래서 한 말이야.

뭐하냐? 정신 사납게? 진짜 맥주 한 캔에 그렇게 되는 거야?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누가?

날 안 불러. 안 부르니깐 찾을 수가 없어. 전지전능(어떠한 사물이라도 잘 알고, 모든 일을 다 수행할 수 있음) 까지는 아니었어도 못 할게 없었는데, 그 아이 하나를 못 찾겠다. 내가 가진 게 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네.

사실 그렇지, 놀고 먹는 데나 좋지.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찾았지. 매번 이렇게.

그냥 전화를 해. 핸드폰 있을 거 아냐.

아, 내가 번호를 몰라, 이제 몰라야 되고.

찾았네.

★

엄마, 잘 지내? 엄마, 천국 갔어? 천국은 어때? 여기보다 나아? 엄마 나는.. 엄마 나는 잘 못 지내. 아무도 내 안부를 물어 봐 주지를 않네. 또 야? 지겹다 진짜. 비 오는 인생.

내가 우울해서 그래.

뭐가요?

비. 곧 그칠 거야.

아저씨가 우울하면 비가 와요?

어.

그럼 태풍 때는 도대체 얼마나 우울 한 거야?

그건 나 아니고 지구의 우울. 잘 지냈어?

비가 그치려고 그래요.

방금 기분이 나아졌거든.

나 아저씨 안 불렀는데.

응 안 부르더라. 나도 바빴어 여기저기, 나도 일이 많았어.

큰일 났다.

왜?

이제 비 올 때 마다 아저씨가 우울한가 보다 싶을 거니까요. 사고무탁 하기도 벅찬데 아저씨 걱정만 늘어서.

안 추워? 왜 이러고 있어?

불행해서요. 이젠 그냥 감기 같아요.

뭐가?

내 불행들이요. 잊을 만 하면 찾아오고 때 되면 걸리거든요. 뭐 찔리라고 한 소리는 아니에요.

너 그거 뭐 알고 하는 소리 아니지?

뭐 찔리는 게 있기는 한가 보네요.

그 말 하지마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찔린다야.

그럼 내가 엄청 잘 골랐네.

해봐 네 얘기 계속.

눈물 없인 못 들을 텐데.

잘 참아 볼게.

혹시 그 얘기 알아요? 인간에겐 네 번의 생이 있대요. 씨 뿌리는 생, 뿌린 씨에 물을 주는 생, 물 준 씨를 수확하는 생, 수확한 것들을 쓰는 생.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그건 사자가 망자한테만 하는 말인데?

도깨비 신부 노릇 19년차 거든요? 귀신들이 하는 얘기 들었죠. 그래서 너무 억울해요. 난 뭔 놈의 인생이 1 – 1, 1 - 2 야. 2로 안 넘어가.

애도.

애한테!

그럼?

많잖아요. 어깨 토닥, 머리 쓰담, 오백 턱.

나, 참. 네 손은?

내 손은 알바를 많이 해서 좀 쉬어야 하거든요. 뭐 중요한 거, 다발 같은 거 받을 때를 위해서 아껴 두려 구요.

뭐 왜?

됐어요. 선물. 예쁘죠?

예쁘네.

그쵸?

뭐 하신 거예요?

머리 쓰담. 잘 지내라는 인사. 나 내일 떠나거든.

★

짐은?

낮에도 물어 봤잖아.

자꾸 듣고 싶어서 그래. 행복해 지니깐. 문자 왔다.

아니야 초인종 소리야. 60년 만에 처음이군.

어.

뭐?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냐?

우리 중 누구도 초인종을 누르지 않아.

아이 씨 왜 그래? 무섭게. 투시해 봐.

나 못하는데?

뭐 자랑이라고 그렇게 당당해? 무슨 저승사자가 투시도 못하냐?

지는.

여기 도깨비 씨 댁 아닌가요?

여기 내 집인데? 날 찾아 온 거야? 제 발로? 나 하고 선약 있니?

아니, 제가 잘못 찾아 왔네요.

집도 알려 줬냐?

너 뭐야? 너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귀신들한테 물어서요. 도깨비집 어디 있냐고? 근데 저승사자가 왜 이 집에 있어요?

부부싸움은 현재 진행형 인가 본데, 모쪼록 좋은 결과 도출해라. 난 심기가 불편한 중이라.

둘이 같이 살아요?

오늘까진, 너 왜 왔는데?

못한 얘기가 있어서요. 그거 있잖아요. 나한테 뭐 보이냐고 묻는 거요.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왜 물어? 어차피 안 보이는데.

누가 안 보인데? 일. 그게 보이면 당장 결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그게 보이면 오백 해주는 거예요? 삼. 그게 보이면 안 떠날 거예요? 가지 마세요. 그냥 여기 있어요 한국에. 안 돼요?

너, 정말 보여?

보이면요?

증명해 봐.

아저씨 대답부터요. 일, 이, 삼 중에 뭐 할 건데요?

너 안 보여.

보이는데 진짜, 진짜 보여요. 이 검.